

09
2025

재외동포의



특집 _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발표

기획 _ 이제는 K관광

이달의 재외동포 _ '하와이 한인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이슈 앤 화제 _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네바다 첫 아시아·아프리카계 대법관 패트리샤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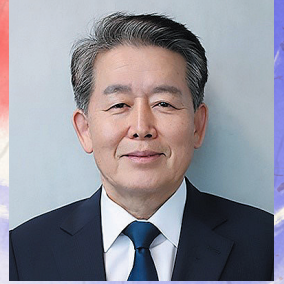


제3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취임식

2025년 9월 10일(수)



“동포사회 연결 넘어 연대 강화하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저는 과거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8년 후 지금, 이제 직접 재외동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임명되어 무한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신생 기관인 재외동포청을 지금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헌신하신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구과 중국의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 기술 혁신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고, 안으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불확실성 하에 저는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포사회와의 연결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날 한류의 세계화, 세계 경제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은 단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국에서 외교관 못지않은 역할을 해 오신 동포 여러분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민간외교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과학기술, 문화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 동포 전문가들이 모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연대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단순히 혈연이나 국적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역사, 문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교육은 차세대 동포들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내국민과 재외동포와의 민족적 공감대를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여 차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정치적·법적 불안정과 차별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의 두터운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난 동포 등 어려움에 처한 국내외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입양 동포, 역사적 특수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청년 이탈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로 지속 유입되는 외국국적동포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모국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지역 사회 정착 가능성이 큼니다.

이제는 국내 체류 동포를 단순 귀한 이주민이 아닌 함께 미래를 설계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한국어 교육, 주거 및 취업 지원, 지역 공동체 통합 프로그램 등을 체계화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세계 곳곳의 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청에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뿌리로 연결되어 저력을 발휘하듯, 우리 직원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진 것은 보다 깊이 있는 동포 정책을 만들고 더 넓은 시야로 동포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모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연대에서 출발합니다. 경쟁만 있고 협력이 없는 조직이나 사회는 소멸하거나 결국은 멸망해 갑니다. 저는 축구에서도 골을 넣는 선수보다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 창을 열며 “동포사회 연결 넘어 연대 강화하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 04 특집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발표
대상에 박태인(시) · 김혜진(단편소설) · 김지현(수필)
시 부문 대상작 _ 국경을 굽히는 일(박태인 · 캐나다)
- 08 기획 이제는 K관광
‘케데한’ 인기로 방한객 늘어...구석구석이 ‘핫플’
‘케데한’ 서 본 갓 써보고...한국에 빠진 외국인들
- 12 이달의 재외동포 ‘하와이 한인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 14 이슈 앤 화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네바다 첫 아시아 · 아프리카계 대법관 패트리샤 리
- 18 초대석 이미아 한불문화교류협회장
- 20 정책 돋보기 “국내거주 동포 위해 재외동포청 역할 · 권한 강화해야”
- 22 OKA 뉴스 “청렴 일상화 실천하자”...동포청 직원들 의지 다져
김경협 동포청장 취임 일성 “동포사회 연결 넘어 연대 강화하겠다”
동포청,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 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기업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받는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다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6년도 지역별 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



발행인: 김경협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 · 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에 박태인(시) · 김혜진(단편소설) · 김지현(수필)

재외동포청, 수상작 발표...시, 단편소설, 수필 3개 부문 13명 선정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문학적 역량 공유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2025. 6. 4.(수)
~ 6.30.(월)
23:59 (한국시간 기준)

응모 자격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 단, 청소년(만 7세 이상~19세 미만)은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공모 부문

부문	종류	편수	1편당 원고 분량	글자수	작품 응모 서식
시	3~5편		제한 없음		
단편소설	1~3편	16,000자 내외	15쪽 내외		
수필	1~3편	5,000~10,000자 내외	5~10쪽 내외		

문의

- 재외동포문학상 운영사무국
- 이메일: overseaskia2025@gmail.com
- 전화번호: +82-10-4302-1810
- 카카오톡 채널: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 공식 페이지 주소: https://m.site.naver.com/11SKG

공식 이미지 QR코드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시상 내역

시	단편소설	수필	수상자별 상금
대상	1명	1명	500만원
우수상	1명	1명	250만원
가작	2명	2명	100만원

시상식·초청 행사

- 지원 내역: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참가비 일체
- 항공은 왕복, 일반석으로 재외동포청 지원기준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일정, 장소, 항공료 상한액은 추후 수상자 개별 통보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5. 6. 4.(수)~6. 30.(월) 23:59(한국시간 기준)
- 방법: 코리아넷(korean.net) 온라인 접수

① 코리아넷(korean.net) 공지사항 접속
↓
②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③ 신청서 작성 → 응모 작품 첨부
↓
④ 저장 (재출력할 때 수정 가능)
↓
⑤ 마이페이지 → 신청서 확인 → 신청 완료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사전 설명회

- 일시: 2025. 6. 13.(금) 10:00~11:00 (한국시간 기준)
- 주소: 재외동포청 유튜브(youtube.com/@OKAKOREA)

발표

- 수상자 발표: 2025년 9월 중
- 재외동포청(oka.go.kr) · 코리아넷(korean.net) · 소통24(sotong.go.kr) 홈페이지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포스터

재외동포 문학은 펜 끝에 새겨진 모국을 향한 그리움을 한글로 전하는 이야기다. 재외동포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낸 작품들로 서로 떨어져 있는 삶을 연결해 주는 힘을 갖고 있다.

올해로 제27회를 맞이한 재외동포 문학상은 700만 재외동포들 간 나아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써 시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의 수상작 13편(시 4편, 단편소설 4편, 수필 5편)을 25일 발표했다.

시 부문 대상은 '국경을 굽히는 일(박태인)', 단편소설 부문 대상은 '악어(김혜진)', 수필 부문 대상은 '고사리(김지현)'가 각각 선정됐다.

발표는 재외동포청(oka.go.kr), 코리아넷(korean.net), 소통24(sotong.go.kr)를 통해 진행됐다.

수상자 13명에게는 총 3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으로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 고국에 초청해 시상식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된 금번 공모에는 해외 거주 동포 문인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전 세계 61개국에서 총 2천4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응모자가 89%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열기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은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고국에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 문인들과의 다

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는 정호승, 나희덕, 문태준(이상 시 부문), 구효서, 은희경, 편혜영(이상 단편소설 부문), 박상우, 권지예, 윤성희(이상 수필 부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맡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문학상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의 다양한 삶과 갈등, 상실과 열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목록

연번	부문	수상 내역	성명	국가	작품명
1	시	대상	박태인	캐나다	국경을 굽히는 일
2		우수상	최재준	미국	몽돌 해변
3		가작	천보린	지부티	소금눈
4			리용	중국	사과배
5	단편소설	대상	김혜진	호주	악어
6		우수상	조혜경	미국	북헌터
7		가작	임옥희	호주	일광절약시간제
8			김용주	미국	스페어타이어
9	수필	대상	김지현	미국	고사리
10		우수상	강선애	독일	정체성, 그리고 나
11		가작	김명중	미국	LA 나들이
12			김선주	미국	사람이 사는 세상
13			강민아	러시아	특별한 들소 이야기

망이 담긴 작품들이 응모되었으며,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미학을 충분히 구현하여 독자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 한인 문학도들의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카디에프 문학상’, ‘쿠프린 문학상’ 등을 수상한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 등 다수의 문인을 배출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이 문학 작품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문학적 역량을 공유하는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



지난해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조성국 작가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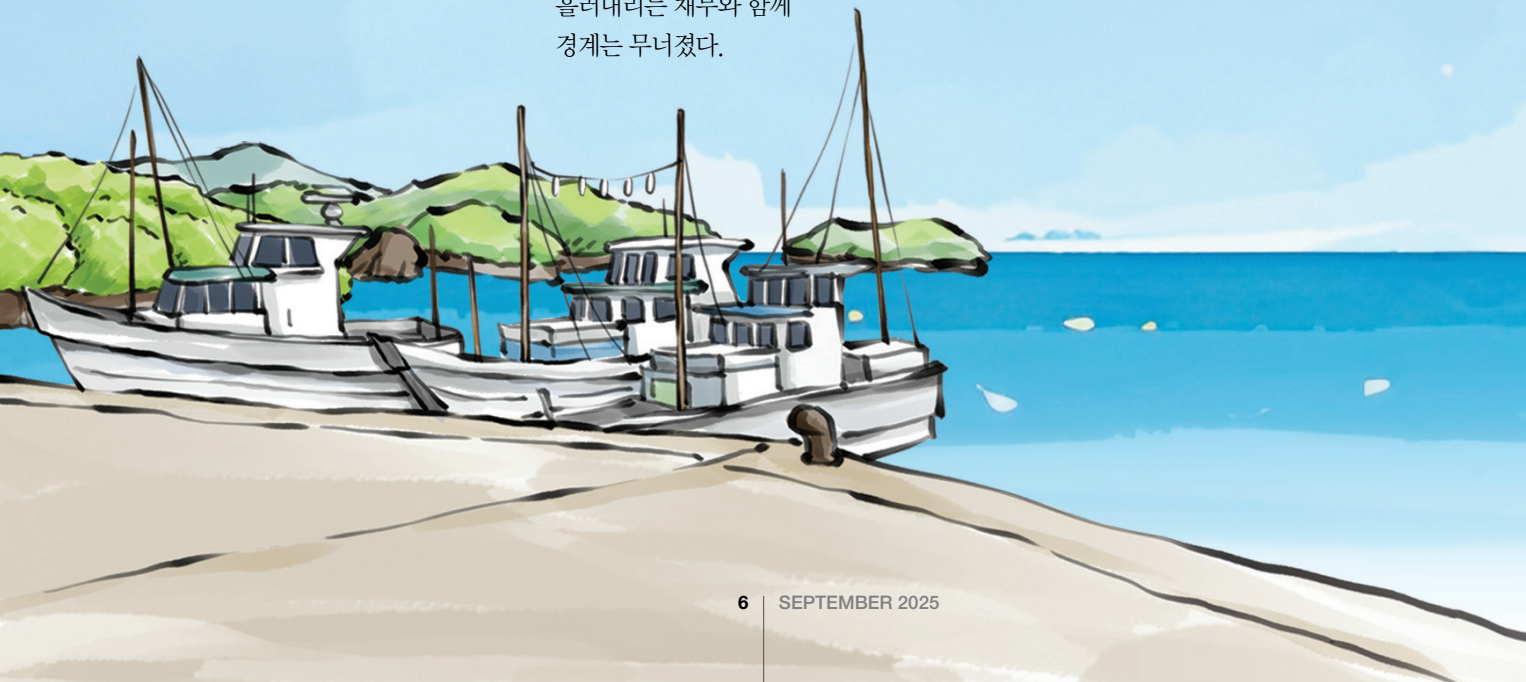
국경을 굽히는 일

박태인(캐나다)

아버지는 날마다
소 한 마리를 해체했다.
칼을 갈고,
뼈를 분리하고,
피를 닦아내며.
모든 건 조용히 진행됐다.
마디마디 얼어붙은 손가락,
벽을 타고 흐르던 검은 피줄기,
숙성된 냄새가 창고 안에서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부두에 닿은 바람은
끝내 등을 밀었다.
뒤돌아보지 않는 어머니,
말없이 걷던 아버지.
국경은
허리를 굽혀야만 지나갈 수 있는
빛의 문턱이었고,
해체된 건
숨, 살, 언어, 그리고 이름조차.

사람들의 허리를 따라
흘러내리는 채무와 함께
경계는 무너졌다.



우리는 살았다.
빛도 살아 있었고,
잔고도 살아 있었으며,
그 모든 생존이
피처럼 똑똑 흘렀다.

그러나 이민 심사관은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서 말을 대신했다.
그 도장은 우리가 들고 온 유일한 붉은 것.
고국의 잉크는 국경을 넘을 때 말라붙지 않았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새로운 문을 여는 일이라 했다.
그러나 나에겐
그것은 문이 아니라
고기덩어리 같은 시간의 해체였고,
도시 바깥의 바깥,
짐승의 냄새가 녹진한 곳에서
냉동된 노동의 틈바구니였다.

나는 기억한다.
아버지의 칼 끝이 지나간 고깃결,
어머니의 보통이 위로 선 핏발,
동생이 남긴 미열과
그 뒤에 남은
해체된 이름의 잔해를. 

‘케데헌’ 인기에 방한객 늘어...구석구석이 ‘핫플’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케데헌 등 ‘K컬처’ 한몫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인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0일 구글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현재(17~23일)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 (Korea) 검색량은 2022년말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다. ‘한국 음식’ (Korean Food) 검색량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케데헌’ 공개 후 75%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한 디저트 전문점 모습.

“오늘 자정, 남산타워에서...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중 아이돌 그룹 사자 보이스가 자신들의 라이브 공연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전 세계 2억명이 넘는 케데헌의 시청자에게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를 생생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또 영화에서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 삼성역 전광판, 북촌 한옥 마을, 청담대교, 자양역, 서울 낙산공원 성곽길 등 한국 곳곳이 주요 장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서울 시민이라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곳들이지만,

외국인에게는 테마 투어와 인증 챌린지가 이어지는 유명 장소로 떠올랐다. 여기에 목욕탕과 핫도그 가게, 인생네컷 부스, 한의원, 족석라면, 김밥까지 ‘K컬처’의 모습도 담아 한국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방한객 2천만명시대 도래...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증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늘어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한국을 찾은 방한객은 173만3

천19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3.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월의 119.7%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 1~7월 방한객은 1천56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다. 이 역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동기간의 106.8%로 회복한 것이다.

방한객의 증가에는 케데헌을 포함한 K팝 등 K컬처와 K뷰티, K푸드 등의 한국산업 제품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K팝을 원산지 한국에서 즐기거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려는 관광객이 늘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인구는 2억2천500만명으로 집계됐다. 외래객의 방한 계기 1위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2.1%)로 나타났다.

정부, 관광 홍보 국가 25개로 늘리고 'K 관광 패스'

코로나의 종식과 저가항공사(LCC)의 증편 등 구조적 환경 변화도 작용했지만,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가 원동력이 되면서 한국이 찾고 싶은 관광지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8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7개월간 1천만명을 넘어선 상태인 데다 세계적으로 K컬처 열풍까지 불고 있어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천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올해 관광 수입은 약 202억5천만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29조4천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소비(1천167조8천억원)의 2.5% 수준이다.

정부는 방한 시장과 상품, 동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 세분화 ▲글로벌 K 관광 마케팅 추진 ▲K 콘텐츠 인기 활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오사카엑스포 등 국제 이벤트 계기 방문 유도 ▲동호회·교육·해양관광 등 특수목적시장 공략 ▲지방 관광 편의성 향상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직접 로드쇼를 개최해 한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 관광 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정부는 또 한류와 연계한 K푸드·뷰티 등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푸드 분야는 수출 전 단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뷰티 분야에선 제조원료 국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에 공동물류기지 두 곳도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강애란 기자



서울 명동의 한 K-푸드 전문점 모습.

‘케데헌’ 서 본 갓 써보고…한국에 빠진 외국인들

경복궁 인근 한복대여점서 ‘K갓’ 인기… ‘케데헌’ 배경지 방문
한글로 ‘엄마’ 쓰인 모자 쓰기도…찜질방·비빔밥 등 매력으로 꼽아

“코리안 카우보이 헛!”(한국의 카우보이 모자!) 최근 서울 경복궁 인근 한복대여점 골목에서 만난 캐나다인 코디는 머리에 쓴 ‘갓’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갓은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에 등장하는 남자 아이돌 ‘사자 보이스’의 상징 소품 중 하나다. 외국인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소품이지만, 코디는 캐나다 현지에서도 케데헌을 보고 갓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선의 멋, 갓잔’ 선보여

한국관광공사도 이런 반응을 고려해 최근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K 기념품으로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 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 한 한복대여점 직원은 “한 달 전부터 사자 보이스의 갓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며 “날이 너무 더워 손님이 좀 줄긴 했지만 케데헌 효과가 있긴 있었다”고 전했다.

케데헌 공개 이후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의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를 보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케데헌 연관 검색어의 52.4%를 보면 한국의 특정 장소로 북촌(11.8%), 낙산공원(9.6%), 올림픽주경기장(9.6%)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독일에서 남편 맥스와 여행을 온 안 카트린은 “항공권을 예약한 이후에 케데헌이 나왔는데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둘러본 곳 중에는 (케데헌에도 나온)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가장 환상적이었다”고 감탄했다.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감천마을은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내 약방에서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궁궐 안에 있는 의료기관인 약방에서 관광객들이 제호탕, 오미자 음료 등을 시음하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국의 특정 장소로 북촌(11.8%) 가장 인기

이들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에도 관심을 보였다. 안 카트린은 남편이 입은 용이 그려진 한복을 가리키며 “왕의 옷”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덕분에인지 경복궁 돌담길에서는 전문사 진사를 대동해 한복 입은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눈에 띄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복, 고궁 등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놀이문화 등 일상 체험도 흥미로워했다.

갯을 쓰고 북촌 골목을 돌아다니던 코디는 “목욕탕(찜질방)에 갔는데 단순히 목욕을 할 수 있는 탕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구역도 있어 신기했다”며 한국 여행의 매력 중 하나로 찜질방을 꼽았다.

프랑스 출신의 마리본은 “딸이 2년째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처음 여행을 오게 됐는데 비빔밥과 김밥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냐고 묻자 “한국에 오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매워서 먹진 못한다”며 웃었다.

한국에 여행온 이유로 K팝, K드라마 등 꼽아

지난 28일 서울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한글로 ‘엄마’라고 크게 쓰인 모자를 쓴 외국인 관광객도 보였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듯해 보였다.

이날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여행을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로 K팝, K드라마 등을 꼽았다.

한국을 포함해 5개 국가를 한 달간 여행 중이라는 영국 출신의 리처드는 “한국을 고른 이유 중 하나는 K팝이었다”며 “가수 현아를 좋아하는데 직장에서 동료가 들고 있던 음악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K 콘텐츠에 대한 호감 긍정적 영향 미쳐

리처드와 함께 여행을 온 친구도 한국 가수를 안다며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를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K 콘텐츠에 대한 호감은 반짝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독일에서 여름휴가를 왔다는 아니카는 한국으로 여행을 왜 왔냐고 묻자 “K드라마 때문”이라고 말하며 2009년 방영한 ‘꽃보다 남자’를 보고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본 이후 한 번은 한국에 와보고 싶었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하와이 한인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37년간 하와이 한인들 위한 의료봉사 활동 공로 기려 선정
의학 연구 및 학술 활동하며 후학 양성...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



9월 '이달의 재외동포' 서세모 박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 박사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30년 부산광역시 동래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기공립중학교를 졸업 후 1948년 연세대학병원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63년 귀국해 연세대 의대 소아과 조교수로 재직하다 1966년 캐나다 대학 토론토 어린이병원으로 옮겨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술 베풀어 한인의 위상 제고

이후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을 베풀어 한인의 위상을 제고했다.

1963년 미국에서 귀국해 연세대 의과대학 소아과 조교수로 활동할 당시 환자 중심의 침상교육과 임상 질환 치료에서 기초 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에서 수련을 마치고 귀국한 젊은 교수들과 함께 의학 교육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또한 처음으로 저명한 소아과 교수를 초빙해 국제 소아과 심포지엄을 열어 시야를 세계로 넓힐 기회를 마련했고, 당시 미개발 분야였던 소아 내분비학의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66년 대한 소아과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무의탁 한인도 끝까지 돌봤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와이 호놀룰루 서세모 클리닉.(왼쪽) 2020년 제14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포상 모란장 전수식

‘서세모 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신 의학교육에 기증...

평생 수집한 의학서적 1천500여권 기증

서 박사는 의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1966년부터 토론토대학 어린이병원연구소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와 관계되는 각종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1972년 토론토대학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하와이 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 시 슈라이너 어린이 병원에 골미네랄 연구실험실을 설치해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와 연관된 호르몬 및 각종 골대사 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치료 방법을 연구했다. 한국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 치료의 선구자인 장준섭 연세의대 명예교수, 한국 소아내분비학 발전에 기여한 김덕희 연세의대 명예교수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명의를 서세모 박사를 사사(師事)했다.

서 박사는 평생 수집한 의학서적 1천500여권을 포천중문 의과대학교에 기증하고, 본인의 모교인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상당액을 기부하며 후학 양성에도 기여했다.

한인기독교 설립 9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사서 간행을 담당하며 한인 이민 역사 기록 보존에 참여했고, 2013년 비영리 건강진흥재단(Healthforce Foundation)을 설립해 의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한인 의료 봉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는 유언으로 별세 후 시신을 하와이대학교 의과대학에 의학 실험용으로 기증하는 등 의학교육을 위해 숭고한 희생

에도 앞장섰다.

이 밖에도 1972~1974년 일본 오키나와에 파견돼 미국식 임상 의학을 일본 의학도에게 전수했고, 일본 소아과학회 총회에서 한국인 의사로서는 처음 강의하는 등 동서양 의학 교류에도 공헌했다.

1970년대 소아 급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이 일본에서 발병하자 가와사키 의사를 하와이에 초청해 함께 연구하는 등 하와이가 미국에서 가와사키 질병을 연구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가와사키 병명은 1967년 최초로 이 질병에 대해 세계 의학계에 보고한 일본인 가와사키 박사 이름에서 유래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김경협 청장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

김경협 청장은 “서세모 박사는 의학 연구와 하와이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일생을 바친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라며 “그의 재외동포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이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9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택천 독립운동 지사, 6월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7월 박노학 전 사할린연류귀환한국인회 회장, 8월 독립운동가 이의경 지사가 선정됐다. 

10개국 51명 정치인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할 논의

행사 주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차기 회장에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

전 세계 한인 정치인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11차 세계한인 정치인포럼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5일 폐막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신디 류 회장,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후원해 지난 2일부터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10개국에서 한인 정치인 5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며 ▲다양성의 포용 ▲문화 외교 이니셔티브의 실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거주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분과 참가자들은 세대 간 경험 공유와 청년 정치인의 성장 지원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글로벌 분과에서는 '이중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다민족 연대 및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북미지역 분과는 한인 정치인의 역할과 잠재력, 언어의 어려

움과 정체성 확립의 문제 해결, 차세대 정치인 멘토링, 문화·언어 프로그램 확대, 정책적 지원과 연대 강화 등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결속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모국-거주국 발전 플랫폼 역할 하겠다”

셋째날인 지난 4일에는 참가자들이 국립중앙박물관과 종합교통관제센터를 방문, 한국의 역사문화와 선진 시스템을 체험하고, 창경궁 야간 투어 및 전통의상 체험을 통해 문화 외교 자산으로서의 한국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5일 오전에는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내부 회의를 통해 미국 신재연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미국 문태원 워싱턴주 머킬티오시의원, 캐나다 최병하 BC주 의원, 캐나다 이승신 전 캐나다 노스웨스트준주 보건부 장관, 영국 권보라 런던 해머스미스 구의회 의원, 우즈베키스탄 이 이고르 타슈켄트 야카사라이구 인민대표회의 의원, 카자흐스탄 조엘레나 알마티 시의원, 러시아 김예브게니 벨리키노보고로드 두마(의회) 의원, 뉴질랜드 멜리사 리 국회의원이 각 지역대표로 새롭게 선출됐다.



지난 9월 4일 한복을 차려입고 창경궁을 방문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가한 10개국 51명의 한인 정치인이 명정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한인정치인협회와 재외동포협력센터가 9월 5일 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명의 지역대표 중 투표를 거쳐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이 세계한인정치인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각국의 한인사회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

멜리사 리 신임 회장은 “높아진 모국과 동포사회 위상에 맞게 한인 정치력과 각국의 한인사회 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글로벌 시대에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와 한인 정치력 신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모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인정치인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공동체로 지속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개회식에는 한인 정치인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여러분 헌신과 열정, 고국 국제적 위상 크게 높여”

국내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상욱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알리셰르 아브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원태 서울시의회 의원, 황선양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올해 포럼은 차세대 정치인의 참여와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정치인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이고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의회 의원(1982년생) ▲김 예브게니 러시

아 노보고로드주 벨리키노브고로드 두마 의원(1985년생) ▲심 드미트리 카자흐스탄 테미르타우 시의원(1985년생) ▲최병하 캐나다 BC주 주의원(1986년생) ▲신재연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1987년생) ▲마리오 베나벤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시의원(1990년생) ▲이수정 호주 빅토리아주 모나쉬 시의원(1993년생, 최연소) 등 각국의 젊은 정치인들이 참가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열렸다.

신디 류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K-리더십’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지금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영향력, 실천력을 공유하고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한인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이고 있다”며, “K-Spirit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넓은 세상과 협력의 길을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은 “세계 각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인 정치인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와 헌신은 우리 모두의 큰 자랑”이라며 “4일간의 일정 동안 진행될 교류와 협력을 든든히 지원하고 거주국과 모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외교부 장관 주최 환영 만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현 장관은 “한인 정치인은 거주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이자,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가교”라고 치켜세웠다. 

노숙·소녀가장서 불사조처럼 일어난 ‘K-스피릿’

“성공의 기준은 돈과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 여부에 달려”

“**K-팝**은 전 세계를 잇는 강력한 문화적 교량입니다. 그 뒤엔 근면, 역경 극복, 부흥의 역사를 품은 ‘K-스피릿(Spirit)’이 있죠. 불사조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마련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패트리샤 리(50)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은 9일 오후 서울 대일외고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K-팝이 놓은 다리를 타고 세계로 번지는 ‘K-스피릿’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프리카계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리 대법관은 네바다주 첫 아시아·아프리카계 대법관이다. 소녀 가장, 노숙, 학대의 긴 터널을 지나 최고 법관의 자리에 선 K-스피릿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패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이 9월 9일 서울 대일외고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부모님처럼 살까 봐 치열하게 공부”

네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리 대법관의 유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여덟 살 무렵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아버지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 이후 영어가 서툰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 둘을 돌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서로 처음 ‘밥’과 마주했다. 집세를 못내 쫓겨 다니고, 학대 피해 여성 쉼터를 전전했다. 열다섯에는 새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며 버텼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고교 시절 전교학생회장·응원단장을 맡아 최상위권으로 졸업했고,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 심리학·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한 뒤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부모님처럼 살까 봐, 도움 준 어른들을 실망시킬까 봐 더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그를 만들어 준 ‘구명줄’은 아낌없이 도움 준 친구들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미연방 시스템인 ‘업워드 바운드 프로그

램’(Upward Bound Program)이라고 했다. 과목별 과외, 방학 때 선행학습, 입시 준비 등을 도와줬다. 그는 “부모 도움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이유”라며 “한 사람의 연민과 사회의 제도적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한복 입고 창경궁 야간 투어 잊지 못할 추억”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은 무료 법률 서비스인 ‘프로 보노’(Pro Bono)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을 꼽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혼 장병의 유해가 이혼한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쪽’으로 자동 인도된다는 군 규정과 맞선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그 결과 미혼 장병은 본인이 생전에 지정한 부모에게 유해가 인도되는 것으로 군 규정이 개정됐다. 그는 “그날 이후, 프로 보노는 제 평생 사명”이라고 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 파산 직전 저소득층,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약자가 주요 고객이었다. 이런 활동으로 그는



어린 시절 한복을 입은 패트리샤 리.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는 패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

2013년 미국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프로 보노 공로상’ 첫 수상자가 됐다.

이번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대해 “다양한 배경의 재외동포 정치인·청년들이 연결되는 포럼이야말로 변화의 플랫폼이다. 경북 공과 창경궁 같은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한복을 입어본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자 감동”이라며 초청해 준 재외동포협력센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포럼에 더 많은 한인 정치인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와 다른 시각 받아들이는 자세 중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회복력은 역사적으로도 비할 데 없다”면서 “최근의 정치·사회적 어려움도 잘 극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공한 리 대법관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뭘까. “돈이나 화려한 직함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공동체의 품격이라며 부연 설명을 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자기 일에서 청렴과 성실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도 짚었다. 그는 “AI가 허구를 사실처럼 지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증 없는 의존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배심원을 설득하는 건 결국 인간의 공감 능력”이라며 “AI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대법관은 마지막 한 마디로 인터뷰를 끝냈다. “Be nice.”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해야 합니다.”

리 대법관은 이날 인터뷰에 앞서 서울 대일외국어고에서 특강을 했다.

학생들을 향한 메시지는 다섯 단어로 요약됐다. 회복력(Resilience), 끈기(Tenacity), 열정(Passion), 연민(Compassion), 청렴과 명예(Integrity). 그는 “평판은 지키는 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면서 “정직과 투명성을 지키며 자신의 평판을 소중히 하라”고 말했다.

힘들 때마다 버팀목 삼는 것은 ‘일기 쓰기’

동료들과의 소통 원칙을 소개하며 늘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이게 제 생각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을 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는 자세, 비판적인 의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힘들 때마다 버팀목으로 삼는 것은 ‘일기 쓰기’라고 소개했다. 부정적 감정을 종이에 꺼내놓으면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하게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게 제일 나쁘다”며 약속을 꼭 지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헬렌 켈러의 명언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 때, 삶은 의미를 얻습니다.” 

“오지랴 여사라 불려도 사명감으로 해냈죠”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유네스코 본부서 ‘빛의 길’ 주제 제17회 평화 콘서트 개최
한인 연주자 70명 · 프랑스 첼리스트 · 스페인 피아니스트 한 무대에서 협연

“**민**간 외교관으로 22년째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어요.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게 제 삶이에요.”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며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는 이미아(57) 한불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최근 여성가족부 주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2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2003년 비영리법인 ‘한국의 메아리’(Echos de la Coree)를 설립, 22년간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해왔다. 한불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프랑스 정부가 주는 최고 문예훈장과 한국 정부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9월 26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7회 평화 콘서트는 그의 대표적 행사다. “17년째 매년 열리며 한국 문화를 보급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해요. 조수미, 백건우 같은 거장들이 신진 아티스트와 협연하며 유망주들을 키워어요.”

올해 주제는 ‘빛의 길’. 한인들이 중심이 된 프랑크푸르트 기반 70명 오케스트라 · 합창단, 프랑스 천재 첼리스트, 스페인 피아니스트가 참여했다. “작년엔 가수 소향이 프랑스 공군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죠. 193개국 외교 사절을 초대했는데, 40~80개국 대사와 외교사절단이 참석했어요.”

그는 프랑스 고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헌직 장관, 참모총장이 축하하고, 각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행사 규모로 인해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나 한국문화원장으로 오해받기도 한다”고 했다.



2013년 7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는 이미아(오른쪽) 회장. 훈장을 달아주는 이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다.

민간외교관으로 22년...프랑스 공로 훈장

이 회장이 ‘한국 알리기’로 발을 딛게 된 계기는 2001년 국립대인 에브리(EVRY) 대학 한국어 전문 강사로 일할 때 받은 충격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리포트 과제를 내주자 50여명의 수강생 대부분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한국은 당시 ‘노스 코리아’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충격이었죠.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자고 결심했어요.”

이후 2003년 한·불 문화교류협회(Echos de la Coree · 한국의 메아리)를 설립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각종 전시회를 기획해



이미아 한불문화교류협회장



재외동포청 후원 제17회 평화 콘서트 포스터

열고 있다.

처음엔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밥 만들기, 한복 체험, ‘고향의 봄’ 노래 가르치기 등 소규모 행사로 시작했다. “파리 목사님들, 주재원들에게 한복 빌려 학생들에게 입히고 세배 연습을 시켰죠. 그게 단체 설립의 씨앗이었어요.”

첫 사업으로 한국 오페라 ‘춘향전’을 유치해 파리 모가도르 극장에서 선보였다. “1년 반 준비 끝에 2천400석이 이를 연속 매진됐어요. 프랑스 피가로, 라디오 클래식에서 ‘한국에도 서양 오페라가 있다’며 떠들썩했죠.”

조수미·백건우 이어 신에 발굴 무대 건인

당시 조수미 외에 한국인 가수가 주목받기 전, 한국 소프라노의 아리아(사랑가)를 생방송으로 소개하며 현지인을 사로잡았다. 이후 파리와 공동으로 진행한 한지 페스티벌, 발레 ‘심청’,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대형 조각 전시 등 굵직한 행사를 유치하고 주최했다. “한국 조각가 작품이 프랑스 라데팡스 신도시 광장에 영구 전시되고, 프랑스 국영방송 골든타임 특집으로 방영됐어요.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한국대표부의 의뢰로 비빔밥 퍼포먼스도 했어요.”

이 회장의 활동은 문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로봇 클러스터와 프랑스 로봇연합회 간 MOU 체결, 여수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파리 이전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길 닦는 사람’(웨이 메이커)으로 활약했다.

그는 “해외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며 지난 4년간 재불한 인여성회 회장으로 회원들과 함께 매년 700~800kg씩 김치를 담가 유학생, 어르신들에게 나눠준 김치가 3t도 넘는다고 했다.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제18회 콘서트 미리 준비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대사 공석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그는 “120·130주년 행사를 성공시킨 경험자로서, 지금쯤이면 양국이 분야별 수교행사 준비에 대한 아젠다 발표가 나와야 한다”며 “저희는 140주년과 연계한 내년, 제18회 평화 콘서트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동 중 어려움도 솔직히 밝혔다. 프랑스인 남편이 그만하라며 매년 벤츠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지원을 끊자, 이 회장은 회사에 취직해 자금을 마련하며 4년째 자립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오지랖 여사’라 불리지만,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국내거주 동포 위해 재외동포청 역할 · 권한 강화해야”

민주당 이용선 · 이재강 · 박해철 의원실과 공동 주최

“고려인 동포 법적 지위 문제, ‘체류 자격’ 아닌 ‘국적 회복’ 이 근본적인 해결책”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거주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 정책 컨트를
타워로서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의원
과 재외동포청이 공동주최한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들의 헌신과 고국 사랑을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재외동포청은 국내
정착 동포뿐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새로운 삶을 꿈꾸는
10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고려인들이 고된 일터에서도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는 기본”이라며 “귀환 초기, 불안
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안
정성과 직업훈련,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도 환영사에서 “국내 거주 다문화인들의 비자와 취
업 문제, 의료보험 사각지대 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계적 접근 없는 이주민 유치 정책 실패할 수도

이날 정책 대화에서는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현황과 지역사

회 정착 현안(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고려인 동포 체류 안정 및 국내 근로환경 개선(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 ▲고려인 청소년 동포 교육·진로 현황 및 발전 방안(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정영순 고려인협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고려인 동포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양질의 직장, 주거, 교육 등 가족의 장기 정착에 필수 조건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배려가 없는 이주민 유치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인 동포가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선주민과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인 동포와 한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취업·의료·교육 문제 해결 위해 ‘통합적’ 정책 필요

이어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장은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통합 및 취업 제한 완화는 인구 사회적 변화와 빠르게 전환되는 산업구조에 비해 대응 속도가 늦었다”면서 “재외동포법 시행령 이후 체류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자녀 세대까지 고려한 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동포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동포 가족의 취업제한’도 포용적인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들의 주요 문제에 대해 한국어 실력 부족, 사회 적응의 어려움, 취업 기회 제한, 차별과 편견, 교육 기회 부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조 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강화, 취업 연계 및 직업 교육 제공,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재외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서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포와 관련된 부서가 8개에다 청까지 하면 12개나 된다”면서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한편, 역할과 권한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은 “대통령께서 재외동포청에 동포 입장에서 차별 해소와 체류 자격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실이 재외동포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실 주도로 재외동포청·법무부·고용노동부가 국내 거주 동포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동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토론에서는 고려인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는 이제 ‘체류 자격’이 아닌 ‘국적 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창**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서 토론자들이 현장 참가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청렴 일상화 실천하자”...동포청 직원들 의지 다져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참여해 ‘청렴 Live’ 교육 온오프라인 진행
김경협 청장 “출범 3년 차, 지금이 청렴 기반 확립 골든타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직원 모두 ‘청렴을 일상화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협 청장은 18일 인천 송도 소재 동포청 본관 36층 대강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직원과 함께 반부패·청렴 정책 관련 행사인 ‘청렴 라이브(Live)’ 교육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업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도 함께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동참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청렴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방적인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청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필두로 청렴 연극 ‘갑질 브레이커’, 청렴 판소리 ‘신 별주부전’, 청렴 특강과 퀴즈 등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열렸다.

문화 콘텐츠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열려

김 청장은 소통간담회에서 “단순한 반부패 교육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재외동포청의 조직 문화와 가치를 깊이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청렴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와 운영이 뒷받침돼야 구성원 스스로도 ‘우리 조직은 청렴한 조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출범 3년 차의 신생 조직으로, 지금이야말로 청렴 행정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18일 인천 송도 소재 동포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 Live’에서 직원과 소통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정책과 사업은 부서 간 역할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일관된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을 일상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김경협 동포청장 취임 일성 “동포사회 연결 넘어 연대 강화하겠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등” 밝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9월 10일 인천 송도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0일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결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며 “우리 동포들의 민간외교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연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 차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동포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체계화 강조

또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와 입양동포, 역사적 특수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분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해외 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지원을 통해 세계 곳곳의 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외통위·정보위·남북경협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9일 김 청장의 임명 배경과 관련, “3선 국회의원, 국회 외통위, 정보위, 남북경협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경험을 보유한 외교 안보 전문가로, 특히 국회의원 재직 중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동포청,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 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공동세미나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중앙아 발전안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전담 조직으로 외교부 산하기구인 오타다스타 코리(Otandastar Qory)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이 외국 기관과 체결한 첫 공식 협약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권익향상은 물론 양국의 동포 정책 기관이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정책 및 프로그램 교환 ▲상호 문화 교류 증진 ▲양국 재외동포 지원 협력 ▲재외동포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오타다스타 코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등 동포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카자흐 간 우호 협력도 도모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협약식 후 양 기관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중앙아시아 관계 강화 방안'이란 주제의 공동세미나도 열었다.



재외동포청-‘오타다스타 코리’ 양측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K-공동체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명승환 인하대 교수는 '재외동포 협력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전략'을, 자넬 카르자후베이 오타다스타 코리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중앙아 협력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오타다스타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기업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받는다

동포청-특허청, 기업 애로 해소해 해외진출 지원...국제소송 대응도 유리해져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의 진위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아포스티유 소개 이미지.

용된다.

현재 원본증명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윅, 온누리국제영업비밀 보호센터 등 4곳이다. 그동안은 이 증명서를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했고, 이로 인해 실제 보유 시점보다 늦은 공증 일자가 기준으로 적용돼 기업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제도를 개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해 곧바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다

2년 만에 누적 상담 10만 건 돌파...재외동포의 든든한 동반자

“전 세계 어디서나, 한 통의 전화로 길이 열린다.”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출범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webcall.g4k.go.kr)’가 2년 만에 누적 상담 10만 건을 돌파했다.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이 숫자는 세계 곳곳에서 울려온 절박한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해답을 찾아온 시간의 기록이자, 신뢰의 증거다.

해외 생활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문제와 마주한다. 증빙서류 한 장, 절차 한 단계가 막히면 ‘국경’이라는 장벽은 더 높아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 행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콜센터 상담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해외이주·영주귀국신고 ▲재외국민등록 ▲국적 ▲병역 ▲가족관계등록 ▲운전면허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관세 ▲보훈 ▲고용 ▲교육 ▲입양동포 등 재외동포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을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운영 2년 만에 달성한 10만 건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가 물리적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동포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의 힘은 ‘언제, 어디서나’에서 나온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심야의 뉴욕, 새벽의 독일, 공휴일의 호주에서도 연결만 되면 길이 열린다.

연결 방식도 진화해왔다. 전화로 시작해 2024년 1월에는 카카오톡 상담을 열었고, 같은 해 5월 국제전화료 부담 없는 웹콜을 도입했다. 이어 2025년 9월에는 웹챗 서비스까지 개시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 건수 증가로 이어지며, 동포들이 더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365 Civil Service Call Center for Overseas Koreans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언제 어디서나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365 Civil Service Call Center for Overseas Koreans

02-6747-0404 / +82 2-6747-0404

QR을 스캔하여 전화·카톡·웹챗·웹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하세요!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주말·공휴일 포함)
상담언어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상담분야 국적/ 병무/ 출생/ 혼인/ 운전면허/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 관세/ 보훈/ 고용/ 교육/ 입양동포/ 해외이주/ 재외국민등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홍보 이미지

콜센터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감’과 ‘사람’이다. 세계 곳곳에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함께 고민하며 관계기관과 소통한다.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이려는 과정 속에서 ‘결을 지키는 창구’라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는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창구가 아니라, 어떤 날은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어떤 날은 막힌 숨을 트이게 해주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더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전 세계 동포 결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는 ‘국경을 넘어 함께하는 마음’을 모토로 한다. 해외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재외동포에게 든든한 ‘Lifeline’이자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10일: 제3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취임식
- 11일: 카자흐스탄 외교부 산하 '오탄다스타 코리'와 업무협약 체결
- 15일: 재외동포청-특허청,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개시
9월 '이달의 재외동포',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선정
- 18일: '청렴 Live'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25일: 글로벌 차세대 서밋 위촉장 수여식
- 29일: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

재외동포청 공지

2026년도 지역별 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

지자체 대상, 국내 체류 동포 맞춤형 생활·안전·통합 지원

재외동포청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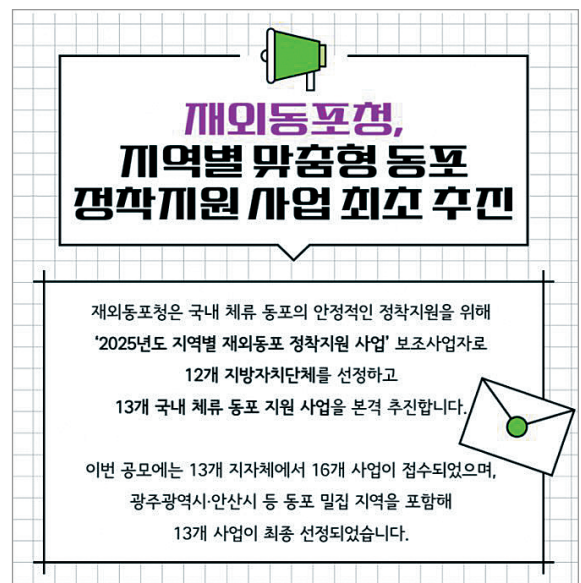
공모 기간은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체류 동포(F-4·H-2 비자 소지자 등)를 대상으로 생활 기반 조성(취업 연계, 의료 지원, 정착 상담 등), 주민 인식 개선(통합 행사 등), 기초 안전(치안·산업 안전) 분야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총 사업 예산은 6억8천6백만원으로, 국비 보조율은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지자체는 사업신청공문, 신청서와 계획서,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조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청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기대 효과, 예산의 적정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보조, 단순화 일반 외국인 대상 사업, 영리·종교·정치 목적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1차 70%, 2차 30%로 분할 지급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정산이 이뤄진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국내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2025년도 지역별 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소개한 이미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자체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에 문의하면 된다.(032-585-3283)

한편, 2025년도 지역별 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에서는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동포 밀집지역을 포함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또 13개 국내 체류 동포 지원사업이 추진됐다.

태풍 예보가 있으면 준비하세요



거주지역에 태풍이
영향을 주는 때를 파악



비상시 대피 방법 파악과
비상용품을 구비



외출은 자제하고
주변에 기상정보를 공유



집안팎 하수구, 배수로,
축대, 옹벽 등 점검



지붕, 간판 등이
날아가지 않게 고정



선박,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정비

태풍 특보 시에는 꼭 지켜주세요



내가 있는 곳의
태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해
위험정보 공유



비·바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머물기

*외출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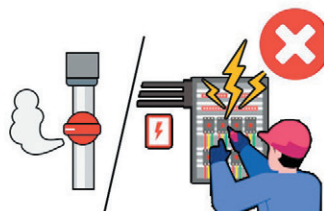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야외활동 금지

*논둑이나 물꼬, 지붕 수리 등



가스를 미리 차단하고
전기시설 점검 금지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2주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